■ 권중달교수의 역사칼럼

불학무식(不學無識)

배우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음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속자치통감> 권 26은 북송 진종(眞宗)시절의 역사를 기록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서기 1006년 2월 14일자의 기록을 보면, 장영이라는 익주의 성도에서 벼슬을 하던 사람이 북송의 정치를 휘두르던 재상을 지낸 구준(寇準)을 만나서 '전한시대 곽광전을 좀 읽어보시지요.' 라고 하였다.

구준은 어떤 사람인가? 북송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거란족 요(遼)의 남하정책 앞에서 북송의 도읍을 남경으로 옮기자는 패배의식에 젖은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판에 과감하게 요와 대결하기를 고집하면서 남경천도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요와 화의를 이끌어 내어서 비록 북송이 매년 30만의 세폐(歲幣)를 요에 지불하기로 하였지만 전연의 맹을 맺게 하여 송·요 대결 속에서 항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던 상황을 끝낸 사람이다.

이 공로는 대단한 것이었다. 요와의 대결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였는가는 진종이 화의에 임하는 사신에게 비록 세폐로 300만을 요에 지불하더라도 협정을 끝내라고 당부까지 하였다. 그런데 재상 구준의 지휘 아래에서 요에 지불하는 세폐를 30만으로 끝냈으니 정말로 대단한 공로를 세운 것이다. 이 30만을 지불하는 화의로 북송은 개봉에서 남경으로 도망해야 하는 치욕을 면할 수 있었고, 매년 요와의 전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로 잘 한 것이었다.

그래서 구준은 이 화의를 끝낸 다음에 우쭐하였다. 황제인 진종도 구준을 경외하는 태도로 대하였다. 뿐만 아니었다. 사람을 뽑을 때에도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깔아뭉개고 독단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준에게도 끝은 있게 마련이었다. 어떤 신하가 진종에게 '전연의 맹' 과정을 보면 '구준이 황제인 진종을 바둑의 패감으로 삼았다.' 고 평가하였다. 패감이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인데, 황제를 패감으로 삼았다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행이 진종이 희생되지는 않고 화의가 성공했지만 황제인 진종으로서는 자기의 위치와 구준의 위치가 혹 뒤바뀐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었고, 그 결과 구준은 재상에서 낙마하였다.

구준은 자기가 왜 재상에서 낙마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장영을 만난 김에 왜 내가 쫓겨나야 했는지를 물었더니 장영이 '곽광전' 을 읽어 보라는 말만 하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낙마한 구준은 지방관으로 쫓겨 나와서 부랴부랴 전한시대에 살았던 곽광의 전기를 찾아 읽었다.

곽광은 어떤 사람인가? 한 무제의 고명을 받아 어린 소제(昭帝)를 보필하여 한왕조를 이끌었고, 소제가 죽자 무제의 아들인 창읍왕(昌邑王)을 모셔다 황제로 세웠다가 두 달여 만에 이를 쫓아내고 다시 무제의 증손인 선제(宣帝)를 세워서 이를 보필하였던 한의 기둥이었다. 황제 두 명을 세우고, 한 명을 쫓아냈으면서 스스로 황제가 될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그는 주공(周公)이나 이윤(伊尹) 같은 정도로 훌륭하다고 칭송된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죽자 그의 가족들이 모조리 처형을 당하고 쫓겨나고 말았다. 그것도 그가 세운 황제인 선제의 손에.... 선제가 배은망덕한 것인가? 그러나 역사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한서를 쓴 반고는 한마디로 곽광을 평가하여 '불학무식不學無識' 하였기 때문에 그런 화가 닥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곽광은 자기가 아무리 한왕조를 위하여 일한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여도 국정을 온통 자기 손 아귀 안에 넣고 황제를 무시하고 우쭐대는 불학무식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제는 곽광의 발호를 보면서도 은인자중하며 모든 것을 곽광에게 위임한 채 그저 때를 기다렸다. 선제가 황제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곽광에게 일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곽광과 대결하려고 자기가 오히려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선제는 곽광의 한 수 위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곽광을 몰랐으니 불학무식하다고 보아도 틀린 것은 아니다.

보통 불학무식이라는 것은 글을 못 읽거나 지식이 없다는 뜻으로만 본다면 반고가 곽광을 평가한 평론은 옳지 않다. 그러나 반고는 아무리 글을 잘 알고 어느 한 방면의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하여도 전체를 통관하는 높고 긴 안목이 없다면 이를 불학무식이라고 본 것이다. 구준은 곽광전을 다 읽고 반고의 곽광 평가인 '불학무식하였다.' 는 부분에 이르자 무릎을 치면서 장영이 자기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라고 깨닫는다.

각설하고 우리 사회는 지금 집단으로 불학무식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를 통관하면 자기 분야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경제는 경제이론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가장 영향이 깊은 것은 정치일 것이고, 사회분위기, 사고의 경향, 국제관계.... 등등이다. 이것은 정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터이다.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치만 잘 알고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며 문화도 모르고 역사철학도 모른다면 이것이 불학무식인 것이다.

사회전체가 이 불학무식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을 통틀어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인문학이 枯死 직전에 있다. 그 결과 사회는 집단으로 불학무식한 상황에 빠졌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누구도 스스로 불학무식하다는 생각을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한 점에서 중국 길림대학의 이효 교수의 글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선 감히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중국이 세계 제일이라' 허망한 생각을 반성하며 심미(審美)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본 것은 경영, 경제학을 한 사람이 갖기 어려운 자기반성이었다. 자기반성! 자기성찰!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울림이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은 나의 과문(寡聞)의 탓일까?

추밀공파 좌윤공 신도비 수립(竪立)

2018년 5월 27일 안동권씨 좌윤공파종중(회장 권준식)은 한성부 漢城府 좌윤공左尹公(권순權循, 추밀공파 17세)의 신도비를 수립(竪立)하였다.

신도비 수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권준식, 사무처장 권석원)는 23개 지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온 문중의 마음과 뜻을 담아 신도비를 세웠다. 공은 판제용감사(判濟用監事)로 후에 둘째 아들 예조참판 지(至)가 귀히 되어 가선대부 한성부좌윤으로 추증되었다.

세종 3년(1421) 호조좌랑, 세종 4년(1422) 호조정랑, 세종 7년(1425) 사헌부지평 등을 역임하며 장마 피해를 살피기 위해 전라도에 파견되고, 기근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경차관으로 경기도에 파견되는 등의 활약을 통해 출중한 실력을 인정받아 세종으로부터 준마 한필을 하사(세종실록 22년 9월) 받기도 했다. 신도비 비문은 권준식 추진위원장(정헌공, 좌윤공 회장)이 직접 찬(撰)했다. 비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3000여 자(字)에 달한다.

권준식 회장은 정헌공이 충선왕의 총애로 안동권씨에서 왕씨로 되었다가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가 왕씨를 숙청할 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 했으나 양촌 권근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출되어 손자 부윤공 권숙에 이르러 안동권씨로 복성되었던 역사적 사건도 일일이 기록했다.

신도비 수립 추진위원회는 신도비 헌성명각(獻誠銘刻) 감사비에 "뿌리 깊은 나무에 지엽이 무성하게 번성하고 흐르는 강물일수록 수원이 멀어지듯이 천여 년 권문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함은 열선조의 은총이요 음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며 공의 공덕과 업적을 기리고 "후손에 귀감이 되고자" 이 신도비를 세운다고 새겼다. 묘소는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 산52번지에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영섭 화백, 만화와 도자기의 만남전(展) 성황리에 개최

흔들리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등에 업힌 어린 아이는 이거라도(?) 잡아야죠!!! 권영섭 화백의 작품이다.

권영섭 화백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만화와 도자기의 만남"이라는 조금은 색다른 주제로 고바우 영감으로 유명한 김성환 화백 등 16인의 예술인과 함께 전시회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은 축사에서 만화가 가벼운 콘텐츠인줄 알았는데 그 속에 철학이 있고 웃음과 재치가 있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소스가 있는 예술의 한 장르라고 말하며 만화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장기계획까지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시대에 만화는 cartoons으로 불리며 눈부신 변주를 하고 있다. 21세기는 융합의 시대이다. 붓과 불의 만남은 만화와 도자기의 만남으로 재탄생했다. 펜과 흙의 만남은 또 다른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와 뜨거운 불로 흙을 달구는 도공의 만남은 그야말로 융합의 제전이었다.

이번 시도는 만화가의 이미지 보존과 애호가들의 작품 소장 방법에 새로운 소장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품 앞에서 권영섭 화백

세계 만화 역사에 기록될 가치 있는 일임이 분명하다. (사)한국원로작가협회와 길성도예가 주최하고 길성도예 후원회에서 주관했다.

전시회는 2018년 10월 26일(금)부터 11월 4일(일)까지 열린다. 권영섭 화백은 안동권씨 종보에 17년여 동안 만화를 연재해 주고 있다. 안동권씨 대종회 권해옥 회장은 축하 난을 보내 전시회를 축하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우암(友巖) 권준희(權準羲) 선생 독립운동유공자로 인정

우암(友巖) 권준희(權準羲, 복야공파 33세, 1849~1936)는 풍천면 가곡리 출신이다. 자는 계상(啓象)이다. 풍기광복단에 가담하여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였다.

풍기광복단은 1913년 채기중을 중심으로 의병 계열의 인사들이 풍기에 모여 조직한 비밀결사단체이다. 풍기광복단은 1915년 7월 대구에서 비밀리에 결성되어 활동하고 조선국권회복단 일부와 결합하여 광복회로 발전하는데 우암 권준희는 고문직을 맡았다.

그는 군자금을 모금하여 박상진에게 전달하는 등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하다 1918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공주옥(公州獄)에서 옥고를 치르면서도 일제의 강압에 끝까지 저항하였다.

그동안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지난 8월에 드디어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유고로 8권 3책의 '우암문집(友巖文集)' 이 전하는데, 주목할 작품으로 '소학' 보다 '대학' 을 먼저 배워야한다는 주장을 펼친 '대학설(大學說)' 등이 있다.

우암 권준희 묘소

僕射公派祖(諱: 守洪) 秋享 案內

2018(무술)년 파조부군(諱:守洪) 추향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파친 여러분들은 가족 동반하여 많이 참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8년 **11**월 **9**일(음력**10**月**2**日) **10:30** 奉行
♣ **장 소** :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향교길 31, 송야단소(송파재사)
♣ **교 통** : 안동터미날→풍산방면 시내버스 11,40,42,43,44,46,72,77번
(터미날에서 두번째 정류장 하차 도보10분) 택시는→기본요금
♣ **연락처** : 파종회관 (054)855-6989, 파종회장 : 010-2755-5322
※ 문탄공(諱: 漢功,13世) 추향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677-1) 단소에서 봉행합니다.

2018 年 11月 1日

安東權氏僕射公派宗會長 權 奇 浩

서울마포종친회 야유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8년 **11**월 **4**일(목) 오전 **8**시 출발
◈ 출 발 장 소 : 공덕오거리에서 공덕초등학교 정문 지나 150m 꿈에그린 한화아파트 후문(권승구 회장님댁 앞)
◈ 야 유 지 : 강화도(석모도→보문사→점심식사→풍물시장→귀가)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18년 11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

서울산악회 정규산행 안내 (제289차)

◈ 일 시 : 2018년 **11**월 **18**일 오전 **10**시 (매월 3주째 일요일)
◈ 등 산 지 : 파주 마장출렁다리
◈ 집결장소 :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 ※ 시간 엄수 바랍니다.
◈ 준 비 물 : 도시락 지참, 간편한 옷차림, 우비 등

회 장(권종훈): 010-4037-6656 등반대장(권오준): 010-3718-4204
사무국장(권오준): 010-3261-2570

2018년 11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 종 훈